

# “현장에 강한 대원 양성·신뢰받는 소방 최선”

●박전조 제19대 보성소방서장 취임

### 초고령사회 대비 재난 대응체계 구축 ‘안전 보성’ 실현 화합하는 조직 문화 조성...‘최상의 소방 서비스 노력’

“현장에 강한 대원을 양성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갖춰 국민에게 신뢰받는 소방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전조(59·사진) 제19대 보성소방서장이 지난 2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박 서장은 취임사에서 “보성군은 국내 최초 탐사르스급으로 등록된 별교 청정 것벌, 은빛 모래의 울포해변, 일립산 철쭉 등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아름다운 고장”이라며 “20여년 만에 다시 보성에서 근무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 군

민들과 함께 고장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민의 신뢰를 받는 소방서를 만들기 위한 세 가지 주요 방침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완벽한 현장 활동이다. 그는 보성군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43%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새로운 소방 수요에 대비해야 하고 재난 발생 시 대형 재난으로 확대될 위험이 매우 높은 만큼 모든 대원이 현장 지휘관이 라는 마음가짐으로 책임감 있게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안전사고 없는 건강한 직장 생활이다. 박 서장은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현장과 원거리 출퇴근 등 업무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언급하며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안전의 기본이 되는 체력 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세 번째는 친절과 소통을 바탕으로 화합하는 조직문화 조성이다. 박 서장은 MZ세대와 기성세대 간, 계급 간, 내·외근 근무자 간, 업무 분야 간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통해 갈등 없는 밝은 직장을 만들어가자고 당부

했다. 박전조 서장은 진도 출신으로 1991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34년간 재직하며 여수소방서 대응구조과장, 화순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전남소방학교 학교장, 진도소방서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현장과 행정 업무를 모두 경험한 그는 탁월한 업무 추진력과 기획력, 현장 지휘능력을 갖춘 베테랑 소방공무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다.

박 서장은 “우리 소방은 최일선에서 도민과 함께 숨쉬며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왔다”며 “민원인을 내 가족, 내 이웃이라 생각하며, 한발 앞선 자세로 최상의 소방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기자



## 전남인재교육진흥원, RISE센터 역량 강화 교육

전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 3일 전남 RISE센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RISE사업 본격 추진에 앞서 기본소양 함양과 소속감 부여를 통한 조직 적응력 향상을 위해 추진됐다.

교육은 전남 RISE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과 조직 청렴문화 강의, 이해충돌방지법 동영상 시청 등 RISE사업 담당자가 갖춰야 할 내용 중심으로 진행됐다. 신규 임용 직원을 비롯한 참석

자 전원이 RISE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김세연 전남도 대학정책과장은 RISE사업 성공적 추진에 있어 센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극 지원 의지를 밝혔다.

범희승 전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은 “RISE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전남이 직면한 인구감소와 산업구조 급변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는 혁신적인 계기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양시원기자



## 광주도시공사 시무식·신입사원 임용식 가져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2일 시무식을 갖고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미래 가치를 높이는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조성’이라는 새로운 미션을 선포했다.

김승남 사장은 이날 2025년 경영 목표와 2030 미래비전 달성을 위해 ▲시민감동 ▲소통협력 ▲혁신성장 ▲투명공정 등 4가지 핵심가치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시민중심 서비스 제공, 자유로운 소통, 창의적 아이디어, 원칙과 신뢰에 기반한 업무 수행으로 머물고픈, 함께하고픈 광

주를 건설할 계획이다. 시무식에서는 신입사원 8명의 임용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선민 신입사원은 “공기업 일원으로서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하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김승남 사장은 “2025년은 광주도시공사가 미래도시 창조 공기업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새해에는 공사의 목표뿐만 아니라 임직원 개인의 소중한 목표까지 모두 이뤄지는 성공적인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수회기자



## 건강관리협 시무식...김인원 연임 회장 취임식도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이하 건협)는 최근 본회 추담홀에서 2025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또 김인원 연임 회장, 강위중 사무총장의 취임식도 가졌다.

5일 건협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26대에 이어 연임한 김인원 27대 회장은 취임사에서 “앞으로도 신입 사무총장을 필두로 직원 모두 힘을 모아 건협이 한걸음 더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회장은 “올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

밀 의료 연구 강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한 검진 품질 향상 ▲고객 특성에 맞춘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서비스 강화 ▲지속가능한 사회 공헌 사업 확대 등에 주력하자”고 강조했다.

강위중 신입 사무총장은 “26대 사무총장직을 맡게 돼 감사함과 함께 큰 책임감을 느낀다. 협회 미래 발전을 위한 핵심 방향으로 신뢰, 투명성, 지속 가능 성장에 역점을 두고 모든 역량과 열정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기수회기자

## 여수 디오션리조트-SMC 엔지니어링 협약

여수 디오션리조트는 “최근 디오션호텔 에메랄드홀에서 SMC 엔지니어링과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임재열 디오션리조트 본부장과 윤동영 SMC 엔지니어링 전무를 비롯한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충북 청주에 위치한 반도체 PM 전문업체 SMC 엔지니어링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임직원들이 디오션리조트의 객실 및 부대시설을 특별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임재열 본부장은 “SMC 엔지니어링 임직원들에게 최상의 휴식처를 제공하고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동영 전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임직원 복지를 증진시키고 디오션리조트와 상생 발전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한편 디오션리조트는 올해 상반기 ‘아쿠아가든’을 오픈할 예정이다. 이 실내 수중 생태계 문화공간은 ‘신비동물원’과 카페를 포함해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체험 공간으로 소호와 화양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김진선기자

## 조선대병원 ‘2024년 우수친절사례 전시회’

조선대병원은 “병원 2관 1층 로비에서 지난 3일까지 11일간 ‘2024년 고객의 소리 우수친절사례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고객만족팀에서 주최한 우수친절사례 전시회는 고객의 칭찬 및 감동 사례를 직원 및 환자들에게 공유하고 친절한 병원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회에는 지난 한 해 고객의 소리함, 홈페이지, 전화 등으로 접수된 친절사례 중 우수한 10건이 전시됐다.

김진호 병원장은 “고객의 소리를 통해 접수된 칭찬, 불만 등 고객의 목소리에 더욱 집중하고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 조선대병원이 되겠



다”고 말했다.

조선대병원은 분기마다 고객의 소리를 통해 스마일 교직원 및 부서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기수회기자

## 목포시 의사회,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지원

목포시는 “목포시(전남·광주)의사회 회원들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의 의료 지원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전남도의사회 의료 봉사단에는 최은창 도의사회 회장(목포비비교과의원 원장)을 비롯해 진모란 목포한국병원 의사, 오명훈 목포기독병원 의사, 박찬원 세안종합병원 의사, 황다윗·박경수 다윗360내과재활의학과 의사, 김영식 우림신경과의의원 의사, 제갈재기 닥터뷰의원 원장 등 목포시 소재 병·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7명의 의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남한의사회도 주·야간 의료를 지원하고 우환형심원 300명분을 전달했으며, 전남도약사회도 500만원 상당의 의약품(진통제, 소화제, 근육이완제 등) 및 피로회복제 등을 제공하는 등 유가족 의료 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다.



김종현 목포시의사회 회장은 “희생자들의 평안한 안식을 기원하며 현장에서 유가족들의 안정과 회복에 최선을 다해 돕고 슬픔을 함께 나누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 보건소는 유가족 중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응급의료기관 5개소(한국, 중앙, 기독교, 시의료원, 세안)에 전담책임자를 지정해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목포=정해선기자

조태성 전남대 교수, 한국어언문학회 회장 취임



전남대학교 대학원 호남학과 조태성(사진) 교수가 최근 한국어언문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올해 1월부터 1년간이다.

조 교수는 전남대 인문대학 국어국문과에서 ‘초의선사의 시문학 연구’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전남대 대학원 호남학과에서 고전시가와 호남전통문화 및 누정과 원림에 관한 강의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어언문학회는 1963년 창립돼 현재 국어국문학·국어교육, 기타 국문학 분야를 아우르는 명실공히 국어국문학 관련 대표적인 전국 규모 학회로 인정받고 있다.

조태성 교수는 “미래 국어국문학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분명히 밝히고, 이를 토대로 향후 세계적인 학술지를 생산하는 학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다이지자

임문희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장 취임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에 선임 임문희(56·사진) 지사장이 취임했다.

임 지사장은 해남 출신으로 1985년 공사에 입사해 순천·광양·여수지사 수자원관리부장, 본사 농어촌에너지지원팀장, 고흥지사장, 영암지사장 등 보직을 역임했다.

임문희 신임 지사장은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농업 생산기반 조성·관리, 수자원 관리, 농지은행, 지역개발 등 공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며 “청렴·안전을 위한 경영 혁신으로 구례군 농민과 함께 농촌을 위한 현장경영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구례=임종길기자

서용규 광주시의원 ‘보훈부장관 감사패’



광주시의회 서용규(더불어민주당·비례·사진) 의원이 최근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국가보훈부장관 감사패를 받았다.

1급 국가유공자인 서 의원은 제9대 의회 전·후반기 환경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정책 제언과 의정활동을 통해 광주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입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수상은 국가유공자의 예우·복지 개선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국가유공자의 권익 신장과 복지 발전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서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주차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했다. 또 광주시민의 애국심을 함양하고자 ‘광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해 제정하기도 했다.

서용규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하기 위한 보훈문화를 확산시키겠다”며 “현실에 입각한 보훈 가족의 복지를 한층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는데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은진기자

인사

국세청 ◇과장급 전보

▲광주지방국세청 정세송무과장 김시형 ▲ 조남국장 한지웅 ▲ 조사2과장 백계민 ▲광주세무서장 장영수 ▲북광주세무서장 노현탁 ▲광산세무서장 강병수 ▲군산세무서장 박익선 ▲정읍세무서장 송평근

◇조임사항

▲광주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유상화 ▲서광주세무서장 정장호 ▲전주세무서장 강신웅 ▲북전주세무서장 최은경 ▲남원세무서장 박재선 ▲나주세무서장 윤병덕 ▲해남세무서장 박현주 ▲순천세무서장 정해동

부음

▲김애린(KBS 광주방송총국 보도국 기자)씨 별세=발인 7일(화) 오전 8시30분 목포시 효사랑장례식장 402호, 장례미사 7일 오전 10시 나주급암당당. 061-242-7000.